

## Government & Agency | 정부 및 기관 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 ◎ 농식품부, “추석맞이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적극 나 서

전경련 회원사, 공공투자기관

등에 협조 서한, 카탈로그 발송 및 업체 방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9월 9일 전경련 회원사 및 공공투자기관, 지자체 등 6,000명에게 우리 농수산물 추석 선물세트 구매를 요청하는 서한과 카탈로그를 발송하였다. 카탈로그는 각종 농식품대 전 수상 및 출판작과 농.수협, 산림조합, 지자체 등이 추천한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9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들이 추석선물로 우리 농수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우리농식품 세일즈에 적극 앞장섰다.

제1차관은 오전 9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에게 “우리 농수산물”을 선물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시 삼성 장충기 브랜드전략위원장, 1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오후 1시 30분 현대그룹 이기승 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고 추석을 맞이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농식품 소비홍보에 적극 노력하였다.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실구매자를 겨냥한 점점마케팅을 전개한다. 직장 여성의 ‘추석선물 온라인 쇼핑법’ 소개, 무료일간지 메트로를 통해 ‘추석맞이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우리 농수산물 추석선물 보내기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온라인 이메일을 통해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가 선물한 농림수산식품 사진 찍어 올리기”, “우리 농림수산식품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올리기”

등 이벤트가 전개될 예정이며, 당첨된 네티즌에게는 우리 농수산물 선물세트를 고향집으로 보내준다.

이벤트 참여와 우리 농수산식품의 다양한 상품정보가 담긴 카탈로그를 보려면 홍보용 웹페이지 (foodjoa.co.kr)에 방문하거나 검색 창에 ‘행복선물’을 검색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들이 우리농산물을 추석 선물로 많이 들렸으면 한다”고 소비촉진을 당부한 바 있다.

### 농촌진흥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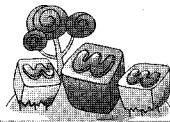
#### ◎ 농진청, 우리음식문화 담긴 한식 상품화 소재 및 아이 디어 공모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한국

음식을 문화 상품화 하여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음식문화가 담긴 한식의 상품화 소재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모는 우리 음식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개발자를 격려하고 한식 세계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루어진다.

한식세계화는 일부 개인의 생각이나 역량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전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정책사업이다. 또한 우리음식을 단순한 식품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므로, 한식에 문화예술을 접목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금번 공모의 주요 내용은 우리음식과 관련하여 문화적 가치를 상품화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1) 우리음식과 문화를 접목시킨 상품화 가능 소재 및 이야기 2) 지역의 전래되는 음식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상품화 가능 콘텐츠 3) 우리음식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그 외 다양한 우리음식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식생활문화학회가 공동으로 공모신청서를 접수받고,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중 시상작품은 10월 16일(금), aT센터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과 한식의 만남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게 된다.

출품작 중 심사를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상 1점, 한국식생활문화학회장상 1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 1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을 선발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한식 및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이야기 발굴 및 문화상품화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에는 문화예술을 '농가맛집' 등에 연계함으로써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는 연구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식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농촌진흥청 전통한식과장 김행란

전통한식과 이진영 031-299-0450



### ◎ 검역원 중심, 국가방역기관 국제표준 동물질병 진단업무(ISO9001) 인증획득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 질병

진단 업무절차 전반에 대해 국제 표준규격인

'ISO9001(품질경영인증)'을 획득함(2009.9.4)에 따라 9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국 각 도 축산위생연구소와 함께 인증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동물질병을 진단하는 기관은 총 62기관(국가기관 45, 수의과대학 10, 민간기관 7)이 있으나 무엇보다 국가 재난형 질병에 신속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국가방역기관인 검역원과 각 도 축산위생연구소(10개 기관)가 우선적으로 국제표준규격을 획득하였다. 지역 방역기관별로 전문인력, 시설 등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제표준규격에 의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질병진단업무가 보다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검역원장, 한국품질보증원 송준일 사장, 9개도 축산위생연구소장 및 관계관 등 총 40여명이 국제표준 인증식과 현판식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검역원장은 그동안의 추진 경과보고를 받고 세계로 발돋움하는 동물질병 진단기관으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하면서 다함께 뜻을 모아 더욱 더 발전하기를 당부하였다.

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검역원을 비롯한 인증 추진팀인 약 60명(검역원 15, 축산위생연구소 45)으로 구성하여 질병진단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처리 매뉴얼을 완성하였으며 수차례 자체 점검과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한국품질보증원에 인증심사를 요청하여 2009. 9. 4일자로 국제표준 규격인 ISO 9001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국제 표준 매뉴얼의 주 내용은 동물질병 진단의뢰, 해부·조직검사, 전문실험실검사,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약 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잘 운영하여야만 3년 후에 재 인증을 받

을 수 있다. 또한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중앙 및 지방 질병진단기관별 동물질병진단 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대국민 진단 서비스의 향상과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국가 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검역원에서는 지속적인 진단 매뉴얼 표준화, 선진 진단 기술 교류, 중앙 및 지방기관의 역할 분담 및 위상제고, 병성감정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진단관련 전문인력, 시설 등에 대한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 열량 등 9개 영양 성분 표시 표준도안 마련**

●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이 마련될 예정이다.

※ 영양성분 표시 :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품에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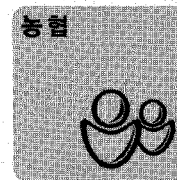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

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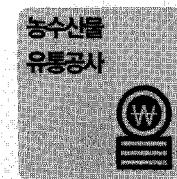


◎ **농협 목우촌 국립축산과학원과 '발효육가공품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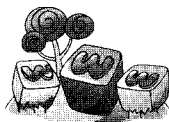
● 농협 목우촌(대표이사 양두진)은 17일 경기도 수원 소재 축산과학원에서 축산과학원과 '발효육가공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한다. 농협 목우촌은 발효 육가공품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 시장을 개척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농협 목우촌은 축산과학원과 ▲발효육 제품 연구 개발 상호협력 ▲개발된 연구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화 및 상품화 ▲상호 정보교류 및 R&D 인력의 연수협력을 하게 된다.

농협 목우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육가공품을 개발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 **aT, 국가생산성대상 녹색생산성 부문 표창 수상**  
친환경 쇼핑물, 녹색식생활 지침서 등 우수평가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사장)가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녹색생산성 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녹색생산성 부문은 올해 신설된 상으로,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제적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에 수여된다. 정부는 매년 체계적인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룩한 기업과 단체에게 국가생산성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aT는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지원활동, 특히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내 친환경 쇼핑몰 운영, 녹색식생활 지침서 개발·보급 등 환경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년 연속(2004~2008) 고객만족도 최상위권 유지, e-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로 4년 연속(2005~2008) 청렴도 1위 달성 등 사회적 가치측면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aT 관계자는 "200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UN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이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임직원의 전사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면서 "향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 성과는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농어촌공사, 국가생산성 종합대상 수상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10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종합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농어촌공사는 조직과 인력구조, 사업구조 개편 등 경

영선진화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선진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정부예산에만 의존하던 소극적 경영에서 탈피,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주하고 도비도 종합관광단지 개발 추진하는 등 자립형 공사 실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받아 최고상인 종합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사법 개정을 통한 어촌의 체계적 기반 마련과 저수지주변개발특별법제정으로 저수지의 친환경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촌 유휴자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저탄소 녹색산업,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된 금수강촌사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 정책사업에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부인사가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개방형 승진심사제 도입과 희망 보직제 및 전보심사제, 상시 퇴출 프로그램 도입 등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한 점도 두드러진 대목이다. 공기업 최초로 노조의 인사·경영권 불개입 단체협약을 체결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다솜등지 복지재단」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단체장, 수상기업 임직원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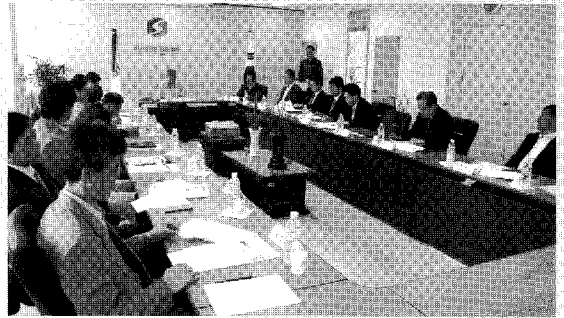
### ◎ KREI, 충남발전연구원 · 한경대학교와 MOU체결

KREI-한경대 MOU, 국제농업개발 교육 강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오세익 원장은 9월 10일 리베라호텔에서 충남발전연구원(CDI) 김용웅 원장과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KREI와 CDI의 MOU 체결로 양기관은 지방농업연구 발전에 더욱 내실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협동연구 수행, 양기관의 특화된 지식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세익 원장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했고, 김용웅 원장은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미 올해 두 차례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서울대 이문한 교수, 방역분과 위원장에 서울대 김재홍 교수가 각각 선출되었다.

배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역과 위생의 연계를 통해 가축질병청정화와 안전 축산물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고 강조했으며, 신임 이문한 자문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돼지오제스키병이 조기 근절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결과 돼지오제스키병 조기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미도태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농식품부와 논의하여 조기에 청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돼지오제스키병 발생농가의 조기도태를 위하여 양돈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본부, 2009년 제1차 가축위생방역자문위원회 개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9월 3일 회의실에서 가축위생방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돼지오제스키병 조기근절방안에 대하여 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장과 위생분과 위원장에

